6. 15통일시대일화

6.15통일시대일화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머 리 말

주체89(2000)년 6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평양에서는 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이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은 피를 나눈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갈 의지를 담은 북남공동선언발표로 이어졌다.

조선민족사에 뜻깊은 자욱을 새긴 력사의 그날로부터 분렬의 원한 서린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봄빛을 뿌려준 6.15통일시대가 시작되였다.

조선반도가 통일열기로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반세기여의 분렬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초석》,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대전환점을 마련》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던 그 나날들은 조선민족모두를 격동시킨 통일일화들과 함께 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취들을 남겼다.

조국통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이 집약되여있는 6.15통일시대일화들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전진시키는 추동력, 민족대단합의 메아리가 되여 오늘도 삼천리강산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차 례

6.15공동선언이 채택되던 나날에

경이적인 사변

주체89(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북과 남 최고수뇌분들의 상봉이 마련되였던것이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갑자기 평양비행장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이미 먼저 와있던 남측 성원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다!》라는 탄성을 올리며 입을 벌린채 굳어졌다.

영접은 장관급일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놀란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그때의 충격을 남조선의 한《국회의원》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마치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듯 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지워지는것 같았다. 아, **김정일**국방위원장! 나는 내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니 김대중본인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는 장군님을 뵈옵자 황황히 승강대를 내려 그이의 두손을 부여잡았다.

장군님께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롯데호텔 2층에 있는 기자쎈터에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취재하기 위해 남조선의 110여개 언론사와 외국의 170여개 언론사 1 270여명의 기자들이 이른새벽부터 전광판앞에서 붐비고있었다.

드디여 평양비행장 현지실황이 전광판에 중계되기 시작하였다.

전광화면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위풍당당히 걸음을 옮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비쳐졌다.

기자들은 일시에 박수를 쳤다. 어떤 기자들은 눈물까지 흘리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전했듯이 박수에 린색하기로 소문난 기자들속에서 환호와 눈물 그리고 박수가 누가 먼저랄것 없이 터져나왔다.

이날 남조선의 한 기자가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취재하기 위한 남측 기자단성원으로 김대중과 함께 평양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때 그는 뜻밖에도 비행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뵙게 되자 가장 력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게 되였다는 흥분으로 하여 심장이 터져나갈것만 같았다고 하였다.

그는 기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해 한순간도 놓칠세라 쉴새없이 취재를 하였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위인의 풍모가 확 안겨오는 장군님이시였다.

기자는 력사의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절세의 위인을 몸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그는 수행성원들을 헤치고 장군님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장군님께 정중히 자기 소개를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기자의 돌발적인 행위도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반갑다고 하시면서 스스럼없이 그에게 손을 내미시여 악수를 청하시였다.

그때를 회상하여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행운을 얻었다. 기자로서 정말 행운이구나 하는 벅찬 감회에 빠져들었다.》라고 회고하였다.

그는 서울로 돌아간 후 신문에 장군님을 만나뵈운 소감을 피력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유일한 중심이였고 결심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것이 곧 의전이고 격식이며 관행이 되는 듯 했다.》라고 하였다.

비행장영접행사가 끝나자 다시한번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대중과 함께 백화원영빈관으로 곧장 직행하시는것이였다.

남측 수행성원들은 다시금 놀라움과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덧 승용차는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숙소에서 평양상봉기념으로 김대중일행과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촬영이 끝났을 때였다.

장군님께서는 문득 사진을 다시 한장 찍어야겠다고 하시면서 김대중을 가운데자리에 세우시는것이였다.

처음에 찍은 사진은 장군님을 가운데자리에 모시고 그들부부가 량옆에 서서 찍은것이였다. 장군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들부부가 스스로 정한 촬영위치였다.

장군님께서 김대중을 가운데자리에 세우고 다시 사진을 찍도록 관심을 돌려주시니 남측 수행성원들은 그이의 숭고한 도덕과 례의에 대하여 깊이 감동하며 머리를 숙이였다.

김대중과 수행성원들은 평양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는 시간안에 장군님의 하늘같이 넓은 도량과 다심한 인정미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남조선과 서방의 언론들은 김대중의 평양도착 보도를 전하면서 한결같이 기자들이 썼던 예측기사를 여지없이 뒤집어엎은 파격이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러한 파격은 회담시에도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과 김대중사이의 첫 회담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상봉을 겸해 이례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런데 난생 처음 북녘땅을 밟게 된 감개무량함과 예상치 못했던 환대에 일행은 다소 굳어진듯싶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런 긴장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는듯 김《대통령》이 오늘 아침식사를 콩나물국에 반숙한 닭알 반쪽만으로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고, 김《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점심을 많이 잡수자고 아침식사를 적게 한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고 하시였다.

순간 장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사실 그날 아침 김대중은 평양을 방문한다는 흥분과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것인가 하는 번거로움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재치있는 유모아로 일행

의 굳어진 마음뿐아니라 긴장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풀어주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자 이번에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해 우리 인민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번에 남쪽에서 특사가 왔을 때 우리가 김《대통령》이 평양에 오시면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우리는 이번에 말보다 실천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온 김《대통령》께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다고 친절히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는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있다고, 김《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평양에 가겠다고 했고 **김정일**국방위원회위원장이 무엇때문에 쾌히 받아들이였는가 하고 큰 의문을 가지고있다고, 우리는 2박3일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사람들의 이 의문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감동되는바가 큽니다.》

김대중은 진정을 토로했다.

사실 그는 통일에 대한 제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먼저 평양을 찾아왔다.

온 민족과 세계의 관심을 모으며 걸음을 한 이상 이번 방문에서 무슨 결실이든지 보아야

세계와 민족앞에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 그의 심리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의 그런 복잡한 심리를 통속적인 언어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니 고맙기 이를데 없었던것이다.

장군님의 용단과 도량에 의해 온 세계가 확신하지 못하고있던 회담의 결실이 이루어져 세상을 놀래운 사실은 파격, 예상치 못한 파격이였다.

새로운 통일리념

주체89(2000)년 6월 14일 평양에서는 북남수뇌분들의 두번째 회담이 진행되였다.

전날 회담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두번째 회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서 하게 되여있었던것만큼 김대중일행은 아침부터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뜻밖의 련락을 받게 되였다.

장군님께서 두번째 회담도 전날과 같이 그들의 숙소에서 하기 위해 영빈관으로 나오신다는 것이였다.

남측 성원일행은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도착하시였다.

김대중은 그이께로 다가가 감격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괜찮다고, 몸도 불편한데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게 도리라고 하시고는 지난밤 잠자리는 편안했는가고 물으시였다.

회담이라기보다 한집안의 일을 의논하듯 따뜻한 정을 안고 대해주시는 그이의 사려깊은 말씀에 김대중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하였다.

외세의 간섭과 분렬책동을 물리치고 조선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그이의 원칙적립장과 넓으신 도량,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로 하여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성과적으로 진척되여나갔다.

북남공동선언문작성에서 무엇이 핵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을 때였다.

김대중은 군사직통전화설치, 경제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 등 구체적인 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자고 요청해나섰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는것과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

으로 되여야 한다고, 우리가 이번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이번에는 구시대의 유물은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너무나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고 누구나 접수할수 있는 장군님의 말씀에 김대중은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6.15공동선언의 기본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이렇게 제시되였다.

이날 저녁 목란관에서 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가 금방 시작되였을 때였다.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자리에 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사려깊은 눈길로 연회장을 일별하시며 그 누군가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김대중의 부인을 찾으신다는것을 알아차린 남측 장관이 부인은 아래탁에 가서 앉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놀라시는듯 한 표정으로 이 연회가 김《대통령》내외를 《리산가족》으로

만드는 연회로 될번 했다고, 《리산가족》상봉을 하자고 하는 때인데 또 이렇게 《리산가족》을 만들면 되겠는가고 하시였다.

김대중과 수행성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그들에게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대통령》내외를 한식탁에 앉게 해야지 억지로 갈라놓을 멋이야 없지 않는가, 서로 떨어져 식사를 하라고 하면 밥맛이 날턱이 있는가, 《대통령》내외까지 《리산가족》으로 만들면 정말 세상에 소문이 나겠다. …

일시에 폭소가 터져올랐다.

웃음발을 타고 화제의 주인공인 부인이 장군님 가까이로 다가왔다.

장군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그를 김대중의 곁에 앉혀주시였다.

부인은 국방위원장님께서 너무도 자상한 배려를 베푸시니 어찌할바를 모르겠다고, 이제는 자기네《가정문제》가 해결된셈이라고 하면서 몸은 비록 령감곁에 왔어도 마음은 줄곧 국방위원장님께 가있다고 감동에 겨워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몸도 마음도 다 령감곁에 가있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큰일난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말씀에 또다시 웃음폭포가 쏟아졌다.

부인은 손벽을 치며 참, 국방위원장님은 어쩌면 자기들의 마음을 그처럼 즐겁게 해주시는가고, 너무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셔서 지금 온 좌중의 시선이 장군님께 집중되고있다고 무랍없이 말씀올렸다.

동포애의 뜨거운 정이 무르녹는 속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였다.

이때 한 일군이 남조선 실무성원들과 협의정리한 북남공동선언문초안을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다.

공동선언문초안을 받아드신 장군님께서는 문건이 잘되였다고 하시며 상대측에 넘겨주어 김대중《대통령》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문건을 받은 김대중은 흥분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드렸다.

《공동선언문초안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이 합의되였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였으면 한다고 자기의 의향을 내비쳤다.

장군님께서는 그럼 좋다고 하시며 그와 함께 연탁으로 나가시여 김대중의 손을 잡아 높이 쳐드시였다.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장내에 울렸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였음을 알립니다.》

순간 연회장에는 폭풍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올랐다.

모두의 얼굴에 감격과 환희가 넘치였다.

그런데 기자들만은 사정이 달랐다. 뜻밖의 정황으로 장군님께서 김대중과 손을 맞잡아올리신 뜻깊은 장면을 촬영기에 담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울상이 된 그들은 저들의 공보수석비서관에게 저마다 간청하였다.

담이 커진 비서관이 장군님께 청을 드렸다.

《두분께서 손을 드신 장면을 기자들이 찍지 못해 야단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우》역을 해달란 말이지, 나는 그 요청을 들어줄수 있는데 김《대통령》의 승낙을 받으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국방위원장님께서 승인하셨으면 저는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김대중에게 그러면 우리가 기자들의 요청대로《배우》노릇을 해보자고 하시며 흔연히 연탁앞으로 나가시여 처음대로 그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시였다.

사진기들에서는 연방 섬광들이 터져나왔다.

촬영이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우리가《배우》노릇을 하였으니 이제는《출연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시여 연회장에 웃음의 파도를 일구시였다.

력사적인 장면은 남조선과 세계의 보도계에 거대한 해일을 불러일으켰다.

북남공동선언의 합의가 선포되자 연회참가자들은 금방 통일을 맞이한 심경에 휩싸였다.

이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회장의 주탁 맞은켠에 있는 대형전광사진을 가리키시며 남측 수행성원들에게 저기 전광사진의 노을이 아침노을같은가, 저녁노을같은가고 물으시였다.

모두의 눈길이 사진으로 쏠렸다.

거의나 한벽을 차지하다싶이 한 사진은 해무리진 바다가의 정경을 선택하여 찍은 걸작품으로서 아침노을인지 저녁노을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말하자면 수수께끼같은 장면이였다.

질문을 받은 남측 수행성원들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 해답을 애써 찾아보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문득 던지신 물으심같애도 거기에는 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것이라고 직감했던것이다.

허나 모지름을 써도 신통한 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장관들가운데서 누가 대답해보라고 재촉하시였다.

장관들은 아직도 머리를 기웃거리며 답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래도 그런 문제는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던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방위원장님, 해뜨는 사진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해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올린 그는 제딴에 대답이 썩 잘되였다고 생각했던지 벙싯 웃으며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저 노을은 아침에 해뜰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고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단순하면서도 신통한 말씀이여서 모두가 놀라움속에 웃지 않을수 없었다. 하면서도 그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유모아로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심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사물은 보기탓이고 생각하기탓이라는 뜻의 그이의 말씀에는 그 무슨 일이든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에 따라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다는 의미가 더 짙게 깔려있었던것이다.

온 겨레가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힘차게 싸워나간다면 조선민족의 앞길은 해솟는 아침과 같이 밝을것이요, 7.4공동성명때 남조선위정자들이 한것처럼 선언은 선언대로 발표해놓고는 돌아앉아서 그것을 빈종이장으로 만든다면 조국통일의 전망은 해떨어지는

저녁과 같이 점점 더 암담하게 될것이 아닌가.

실로 장군님의 유모아는 가장 적절한 기회에, 가장 적중한 표현으로 되는 명담중의 명담이였다.

환송오찬

주체89(2000)년 6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명의로 김대중과 그의 일행을 위해 환송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날 저녁에 김대중《대통령》에게 남측에서 우리를 위해 연회를 차렸는데 우리도 래일 오찬을 차리려 한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에《상호주의》를 하자는 말도 있는데 우리도 좀 호상주의를 해보자는것이라고 해학적인 말씀을 하시여 남측 수행성원들을 웃음속에 가슴뜨끔하게 만드시였다.

장군님께서 오찬장소에 나오시자 김대중은 이렇게 말씀올렸다.

《국방위원장님,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환대해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환송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계속되였다.

그사이 위대한 장군님께 완전히 매혹된 남측 수행성원들은 그이의 주위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그들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시던 장군님께서는

북남간의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상 비방중상과 상대를 자극하는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열흘 있으면 6.25인데 남쪽에서도 북을 적대시하는 6.25관련행사들을 그만두며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장관들에게 김《대통령》과 자신의 체면을 조절해줄수 있는 사람은 당신들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조종하지 못하면 장관자리들을 다 내놓게 하고 자신께서 직접 서울에 나가 장관을 겸임하겠다고 하시였다.

유쾌한 폭소가 터졌다.

장관들은 아픈데를 면바로 찔리운듯 장군님앞에 머리숙이며 공동선언이 잘 리행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결의다졌다.

김대중도 장군님께 《그렇게 안돼야죠. 너무 념려마십시오.》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다.

오찬이 마감시간을 가까이하자 장관들은 아쉬움이 더욱 커져 아예 장군님의 주위를 에워쌌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김《대통령》과 남쪽의 정치인들이 평양에 와서 대단한 일을 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야 할 민족사적임무가 우리에게 젊어져있다,

우리는 언제나 민족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뜻깊은 오찬회석상에서 김대중과 남측 장관들을 대상으로 하신 장군님의 말씀은 민족애에 관한 특강이였다.

조국통일사에 길이 남을 인터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언론계에서 한다하는 인물들이였다.

주체89(2000)년 8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후에 그들이 《충격적인 인터뷰》라고 대서특필한 그 접견과정에 있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일심단결과 군력

위대한 장군님을 뵙는 첫 순간에 벌써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동포애와 민족적인 자존심, 넓으신 도량에 심취된 대표단성원들은 시간이 흐를

수록 그이의 가르치심을 더 받고싶은 심정을 누를수 없었다.

이야기도중에 장군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한 언론사사장을 부르시였다.

머리희슥한 사장이 정중히 일어서서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장군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였다.

《언론기관에서 일한지 몇년이나 되였습니까?》

물으시는 뜻을 알수 없었던 그는 머뭇거리다가 《예, 수십년이 되였습니다.》라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뜻밖에도《그러면 그동안 한 80～90%는 반공기사를 썼겠구만.》라고 말씀하시였다.

폭소가 터졌다.

직업적인 타성으로 장군님의 물으심에 물음표를 달고 잔뜩 신경을 도사리고있던 언론사사장들은 그이의 통속적인 말씀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분위기가 일시에 달라지자 그들은 알고싶은, 묻고싶은 충동이 불같아져 불쑥불쑥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상밖의 인터뷰가 진행되게 되였다.

한 언론사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국방위원장님,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온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일심단결이고 두번째가 군력이다,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다, 다른 나라와 친하자고 해도 튼튼한 군력을 가져야 한다. …

대표단성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였다.

군력이 약했던탓에 조선민족이 당한 치욕의 력사가 생각나서뿐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 정녕 그 위대한 정치가 없었더라면 대국들의 짬에 끼운 조선은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국권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들의 각축전장이 되여 인민들은 란리에 시달리고 나라는 페허가 되였을것이다. …

그러니 선군정치는 분명 7천만 온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백전백승의 보검인것이다.

그들은 선군정치가 어찌 보면 정치리념이기전에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고수의 위력한 무기라는 점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하며 깊은 생각들에 잠겼다.

합작도 우리 민족끼리

언론사대표들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무랍없이 올리는 질문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박한 식견과 철의 론리, 예리한 판단과 해학적인 설명으로 명쾌한 대답을 주시는데 신명이 났던것이다.

어느 한 언론사대표가 남에게 뒤질세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방위원장님, 북의 만화영화제작과 콤퓨터 쏘프트웨어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그러니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합작하여 해외에 진출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것 같습니다.》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공화국의 발전된 모습 특히 만화영화제작과 콤퓨터기술분야의 비약적인 성과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인차 말씀을 안하시고 한바탕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말씀을 올린 대표는 물론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과 의문이 실리였다.

(북은 외부와의 관계문제에서 심중하다는데 혹시 외람된 말씀을 올리지 않았는지?!…)

이어 웃음을 그치신 그이께서는 대표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이 이 분야에서 합작하면 우리가 50을 가지고 남이 50을 가지는것으로 돈이 다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와 합작하겠는가.…

순간 모두는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이 너무도 명백한 장군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서 모든것을 민족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며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거대한 바다가 되여 파도쳐 온것이였다.

그들의 뇌리에는 일시에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그 유명한 표현이 떠올랐다.

우리 민족끼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만난을 이겨내며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겨레를 위하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가 응축되여있는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의 그날까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임을 그들은 절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한마디의 명답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가 빈말이 아님을 천명하시였고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자면 7천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통일의 대명제를 다시한번 강조하시였던것이다.

통일은 언제?

어느덧 시간은 많이도 흘렀다.

언론사대표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시간의 흐름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고싶던 문제들을 말씀올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질문의 폭이 넓어져 조국통일문제에로까지 이어졌다.

여태껏 침묵을 지키고있던 한 언론사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국방위원장님,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들은 모두 흠칫 놀랐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즉석에서 예언을 바라는것과도 같은 일종의 무례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사실 반세기이상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조선의 통일이 언제 된다고 그 누가 즉시 꼭 찝어서 결론할수 있겠는가.

곱지 않은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자 그는 얼굴을 슬며시 붉혔다. 장군님을 직접 뵙고 온넋이 심취되여 그이의 고견을 받고저 올린 질문이였는데 그만 좌중의 눈총을 받게 되니 당황해졌던것이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 질문도 흔쾌히 받아

들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시더니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통일시기는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가 하고 마음을 조이던 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경탄의 빛이 일었다.

장군님의 말씀의 뜻도 깊은것이지만 그처럼 미묘하고 까다로운 질문에 어쩌면 그리도 명쾌한 대답을 즉석에서 주실가 하는 신비스러움이 온넋을 꽉 틀어잡은것이였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다.

알고보면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하거늘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통일의 시기를 한마디로 천명해주셨으니 그들이 어찌 장군님의 비범함에 탄복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상상도 못한 생일상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참관하고있던 때인 주체89(2000)년 8월 10일이였다.

그들의 숙소로 한 일군이 찾아와 다급히 물었다.

《〈중앙일보〉사장선생이 누굽니까?》

《예, 제가 〈중앙일보〉사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이 선생의 생일이지요?》

《예-에?! …》

두눈이 휘둥그래졌던 사장이 속구구를 해보더니 얼굴색이 밝아졌다.

《아,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 생일입니다.》

백두산참관에 흥분되여 생일도 감감 잊고있던 사장, 그는 오히려 그게 즐거워 소리내여 웃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럽니까?》

일군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이 선생의 생일이니 가서 축하를 해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요?! …》

사장은 깜짝 놀라 선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장군님의 은정으로 생일상을 차렸으니 어서 갑시다.》

그리하여 이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소백수기슭에서 사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베풀어졌다.

당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던것은 말할것도 없고 함께 온 남조선언론사대표들도 장군님께서

본인도 잊고있던 생일까지 헤아려 축하연까지 베풀어주신데 대해 감동을 금치 못했다.

사장은 남조선에 돌아가자마자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가 깃든 그 사연을 출판물에 실어 온 세상에 전하였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재벌이 받은 재부

주체89(2000)년 6월 29일이였다.

평양을 방문한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과 그의 아들인 정몽헌회장을 만나주시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시종 따뜻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건강상태며 기업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개성공업지구건설과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시고나서 정주영일행에게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명예회장선생은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나 다름없다, 명예회장선생의 공적은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것이다. …

순간 좌중에는 뜨거운 격정이 차넘쳤다.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 공적!
《고맙습니다. 국방위원장님!》
젖어든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그이를 우러르는 80고령의 명예회장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있었다.
기업으로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 세우겠다는 제나름의 신조를 안고 살아왔으나 진정한 애국의 길을 몰랐던탓에 갈길 몰라 방황해온 수십년 세월, 한때는 정계에도 진출하여 《대통령》후보로도 나서보았던 남조선의 손꼽히는 재벌로서의 그의 극적인 인생전환은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여생이나마 후회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살려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 장군님께서는 그를 북남경제협력의 길, 민족화해의 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가 걸어온 기나긴 과거가 어둠이였다면 장군님의 품에 안겨 애국의 길을 걸어온 길지 않은 생은 광명이였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그렇듯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그 믿음, 그것은 인간의 재부중의 재부였다.
그는 진짜 재벌이 된셈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한생 개인적인 재부를 위해 뛰여다닌 메마른 그의 삶에 민족적인 향취를 부어주어 조국사에 길이 빛내주신것이였다.

칠보산송이버섯전설

주체89(2000)년 추석명절때였다.

추석을 계기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왔다간 남조선의 수뇌상봉일행과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일행 등 267명에게 1인당 10㎏의 칠보산송이버섯을 보내주시였다.

이외에도 그이께서는 평양에 와보지 못한 64명의 각계 인사들에게도 꼭같이 칠보산에서 채취한 진귀한 송이버섯을 보내주시였다.

조선의 명산 칠보산의 송이버섯은 그 맛과 향기가 독특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하기에 김대중《대통령》의 부인도 력사적인 평양상봉시 공화국의 국방위원회명의로 차린 오찬석상에 나온 송이버섯료리를 보고 귀한것이라고 부러워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평양에 온 모든 남측 성원들에게 칠보산에서 나는 첫물송이버섯을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하시였으며 제2차 북남상급회담

대표로 왔던《통일부장관》에게도 추석때 수뇌회담수행원들과 언론사대표들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하겠다고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추석을 맞으며 남조선사람들이 민족의 향취를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처럼 송이버섯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추석을 맞으며 민족의 향취 그윽한 첫물송이버섯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그 송이버섯마다에 슴배여있는 장군님의 고결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현대아산 회장 정몽헌은 추석이 지난 어느날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시는 장군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그이께 추석때 저희들에게 너무 좋은 송이버섯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정몽헌회장이 올리는 감사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송이버섯이 남쪽에 가는 기간에 선도가 떨어지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정몽헌회장과 일행은 그이께 선도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칠보산의 송이버섯향기가 그대로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올렸다.

현대의 한 관계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것이라고 하면서 칠보산송이버섯을 은박지

에 싸서 현대아산 직원 100명에게 다 나누어주었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되여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당사자들은 물론 그 친지들도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각별한 은정을 가슴쩌릿하게 느낄수 있게 되였다.

그후 남조선의 각지에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전하는 칠보산송이버섯전설이 생겨나 널리 전해졌다.

남조선언론들은《맛있다. 칠보산송이버섯》등의 제목으로 송이버섯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칠보산송이버섯이야말로 특유의 향과 맛, 섬세한 섬유질을 가진 최고식품으로서 내외에《가을의 미각》이라고 소개될만큼 명품중의 명품이라는것, 칠보산은《함북의 금강》으로 불리우는 명산이라는것, 북에서는 이미 1976년에 이 산을 자연보호구로 정하였다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에는 5대명산을 꼽았지만 로동당시대에는 6대명산을 꼽고 칠보산을 단연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는것 등 저저마다 칠보산송이버섯과 칠보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것은 장군님에 의해 생겨난 칠보산송이버섯전설이였다.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주체91(2002)년 4월 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측《특사》를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한없이 인자하신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 《특사》는 이날 그이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북남철도와 도로련결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특사》는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련결문제에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만 련결할것이 아니라 동해선철도도 련결하여야 한다고, 신의주—서울철도만 련결하면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참으로 생동한 비유였다.

장군님의 유모아적인 말씀에《특사》는 얼굴이 벌개지고 좌중의 사람들은 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한마디의 비유속에 백마디의 의미가 담겨진 그이의 말씀.

정녕 그러했다. 동서의 철도를 다 련결하여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

로 이바지할수 있고 실리도 크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7천만 온 겨레의 민족적리익과 통일조국의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그이의 의미심장하면서도 신통한 비유는 그후 여러갈래의 북남대화장들에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되여 상대방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북남관계의 첫사랑

주체94(2005)년 7월 16일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금강산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푸른 숲 우거진 산, 지저귀는 온갖 새들, 맑은 물 흘러내리는 시내가…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강산에 와있는 정몽헌회장의 미망인 현대그룹회장과 그의 딸 그리고 현대아산부회장을 만나시였다.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정몽헌선생은 정말 아까운분이였다고 추억하시면서 불상사가 생긴데 대하여 아픈 그 심정을 이루다 말할수 없다고 하시며 못내 애석해하시였다.

현대그룹회장일행은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정몽헌회장의 사망은 남조선의 《한나라당》(당시)이 불법으로 꾸며낸 《특검》의 칼에 의해 빚어진 명백한 정치적타살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철면피하게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워보려고 온갖 비렬한 권모술수를 다 꾸미였다.

그때 공화국에서는《한나라당》의 이 후안무치한 행위를 전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화해협력의 개척자의 한사람인 정몽헌회장이 뜻밖에 사망한데 대해 못내 애석해하시면서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시였으며 그후에는 현대와 그의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담으시고 현대그룹회장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중요하다,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당국보다 훨씬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시작하였다. …

그러시고는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가문은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북남관계에서 현대가 그 어느 기업보다 모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정몽헌회장의 미망인과 수행성원들은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를길 없었다.

첫사랑!

무릇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이라고 하면 일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중한것으로 일러왔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현대와의 관계를 첫사랑이라고 불러주시지 않는가.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쳐주시고 북남관계의 첫사랑으로까지 민족앞에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믿음앞에 일행은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였다.

10월상봉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6(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남조선의 로무현《대통령》을 만나시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하시였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륙로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뇌상봉을 앞두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그 어떤 형식과 틀에 매달리면 안된다고 하시며 륙로를 따라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먼곳에서 오는 친혈육을 동구밖입구에까지 나가 반갑게 맞아들이던 조상들의 옛 풍습 그대로 일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남측일행을 현지에 나가 맞아들이도록 동포애의 뜨거운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갈라진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남조선《대통령》이 걸어서 넘어오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세계의 관심속에 로무현과 뜨겁게 상봉하시던 력사의 그날 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로《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륙로로 오셔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는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매혹된 남측 수행성원들은 저저마다《**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참으로 인정이 많으시고 대담하시고 통이 큰 지도자이시다.》,《분단력사에 처음 있은 이번 륙로

정상회담의 길을 마련해주신 국방위원장님께 인사를 드린다.》, 《로무현대통령은 임기말기에 행운을 받아안았다.》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정례적이냐 수시로이냐

력사적인 첫 회담이 진행될 때였다.

회담과정에 문득 로무현이 위대한 장군님께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해올리였다.

뜻밖의 제의에 회담장안의 분위기는 한순간 긴장되였다.

바로 이때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친척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는가? 수시로 놀러가는것이다, 국가간의 관계라면 정례적이라는 말이 맞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맞지 않다, 수시로 만난다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북남관계는 언제든지 편하게 래왕할수 있는 관계라는 내용의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다.

순간 크나큰 충격과 감동이 온 회담장에 차넘쳤다.

북과 남의 수뇌상봉이 국가와 국가간의 상봉이 아니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수시로 만날수 있는 한민족, 한혈육의 상봉이라는 너무도 명철하고 동포애적인 그이의 말씀에 남조선의 대표모두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회담전날 4.25문화회관광장에서 환영행사때 벌써 따뜻한 환대를 베푸신 장군님의 사려깊은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지낸 혈육을 맞이하는듯한 친근감을 온몸으로 절감했던 그들이였다.

한 대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남북관계를 국가적관계로 보는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모인다는 관점이 강하셨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무료로 오셔도 됩니다》

가깝고도 멀게만 여겨왔던 평양, 두렵고도 생소한 첫 평양길에서 로무현은 자기들을 외국의 국빈이 아니라 한민족의 귀빈으로 따뜻이 대해주시는 위인의 숭고한 민족애, 뜨거운 인간애를 받아안았다.

상봉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자리는 편했습니까, 점심을 잘 드셨습니까, 옥류관국수를 드셨다는데 평양국수와 서울국수중 어느것이 더 맛있었습니까, 수시로 만나자고 했으니 또 많이 만납시다 등 《대통령》내외와 수행원들의 생활을 가족처럼, 친지처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더우기 그이께서 10월 3일 오후 회담을 앞두고 로무현《대통령》이 영빈관현관까지 나오게 하지 말고 자신께서 회담장복도를 따라 걸어들어오면 문앞에서만 영접하도록 해주신 사려깊은

조치는 《대통령》내외는 물론 일행모두를 크게 감동시켰다.

하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단 한번의 상봉을 통해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풍모에 크게 감복한 로무현은 옥류관연회때 《북에 막상 와보니 음식도 같고 잠자리도 같고 통역도 필요 없는 한식구라는 정말 포근한감을 느꼈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그는 회담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가기에 앞서 장군님께 퇴임후 다시한번 평양을 방문하고싶다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얼마든지 환영한다고,《무료로 오셔도 됩니다.》라고 친근한 롱담으로 로무현의 청을 쾌히 승낙해주시였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남기신 가지가지의 일화들은 6.15시대를 전진시키는 추동력, 온 겨레를 통일에로 부르는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어제, 오늘에 이어 래일에도 영원히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조선민족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이다.

6.15 통일시대일화

집필: 리청호
편집: 안수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4월

ㄱ-6835012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